

# 축구 국가대표팀에 K리거는 75%...3골 이호재, 득점 선두

연령 구분 없이 국가대표 75명 중 K리거 56명

24세 이하팀 이호재, 22세 이하팀 안재준 눈길

한국 축구 A대표팀과 24세 이하 대표팀, 22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 중 프로축구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령 구분 없이 현 국가대표 총 75명 중을 시즌 K리거는 56명(75%)이다.

K리그 1부와 2부를 통틀어 25개 구단 중 5개 구단(K리그 1 수원FC, K리그2 안양, 충북청주, 충남아산, 천안)을 제외한 20개 구단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발탁됐다. 울산과 전북이 각각 7명, 뒤를 이어 서울이 6명을 배출했다.

성인 대표팀인 A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은 5명을 보낸 전북이다. 24세 이하에는 서울 이랜드가 3명, 22세 이하에는 서울이 4명을 보냈다.

A대표팀 선수 중 현재까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나상호(서울), 송민규, 조규성(전북)까지 3명이다.

중앙 수비수 조유민(대전)은 인터샐트 27회로 K리그1 전체 선수 중 공동 2위, 클리어링 47회(8위)로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김영권(울산) 역시 인터샐트 27회로 조유민과 함께 공동 2위다. 전체 패스 성공은 262회로 9위, 이 중 전진패스 성공은 131회로 1위다.

측면 수비수 김태환(울산)은 공격지역 패스 성공 62회로 1위다. 조규성은 키패스 8개로 공동 3위, 이기제는 크로스 성공 8개로 공동 2위다.

24세 이하 대표팀의 경우 이호재(포항)가 K리그1 4경기에서 3골로 가장 눈에 띈다. 이호재는 4경기 합계 출장 시간 44분 동안 3골을

터뜨리는 등 특급조커로 활약 중이다. 엄원상(울산)과 고재현(대구)은 개막 라운드에서 득점에 성공했다. 조상준(경남) 역시 가장 최근인 4라운드 충북청주전에서 시즌 1호 골을 신고했다.

수비수 중에서는 조진우(대구), 이상민(성남)이 소속팀에서 전 경기, 전 시간 출장하며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경남 골키퍼 고동민은 올 시즌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을 했다.

22세 이하 대표팀 중 주요 선수는 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 중인 안재준(부천)이다. 안재준은 부천의 최근 3연승을 이끌었다.

엄지성(광주) 역시 4라운드 인천전에서 시즌 마수같이 골에 성공했다. 황재원(대구)은 데뷔 첫해였던 지난 시즌 34경기에 나와 1골 3도움으로 깜짝 활약했고 올 시즌 역시 전 경기, 전 시간 출장 중이다. 이태석(서울)도 현재까지 전 경기, 전 시간 출장해 왼쪽 볼락이 수비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태석은 3라운드 울산전에서 나상호의 득점을 도왔다.

뉴스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와 차례로 평가전을 치른다.

## 클린스만 마음 잡아라...조규성·오현규, 스트라이커 경쟁



조규성 “골 결정력 배우고 싶다”

오현규 “감독에 내 장점 보여줄 것”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조규성과 오현규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사로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조규성은 지난 20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된 뒤 기자들과 만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대표팀에 오면서 유튜브로 골 장면을 봤다. 대단하시더라. 많은 부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규성은 이어 “(감독님이)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 같은 공격수로서 배울 부분은 배우고 싶다. 골 결정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을 배우

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현규도 클린스만 감독 예찬에 가담했다. 오현규는 21일 파주NF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님이 새롭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 장점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셀틱에서 잘해온 것처럼 감독님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기대했다.

오현규는 이어 “감독님이 워낙 선수 시절 유명했던 것을 알고 있고 공격수로서 배울 점이 많다 느낀다”며 “영어를 더 향상시켜서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성과 오현규는 오는 24일 콜롬비아전과

28일 우루과이전에 출전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규성은 “경기에 나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나간다면 감독님과 처음 하는 소집이고,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내 장점을 최대한 살려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오현규는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아컵 우승을 1차 목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컵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오현규는 “감독님과 함께 아시아컵에서 우승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같이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체육중 수영·유도 전국대회서 금 3·은 2·동 3개 수확

광주체육중학교 수영과 유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중 수영팀이 제 13회 김천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2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 유도팀이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체육중 수영 정건우는 남자중학부 평영 200m 결승전에서 2분 20초의 기록으로 금메달, 평영 100m에서 1분 04초를 기록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석민은 자유형 장거리 1500m에 출전해 1위를 기록했으며 자유형 800m에서도 8분 36초의 기록으로 자신의 기록을 4초 앞당겼다.

남자 계영 400m에서는 정건우·유석민·



광주체육중학교 수영팀.

이준·김민우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유도에서는 광주체육중 조호진이 여자 중학부 52kg급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인천 연성중 고다연을 상대로 후리기 한판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중부 63kg급에 참가한 박보빈은 경기체중 박지아를 꺾어 한판승으로 누르고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육중학교 유도팀.

광주체육중은 여중부 단체전에서 서울체육중을 3대2로 제압하고 3위에 입상했다.

광주체육중 이준재 교장은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5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소년체육대회까지 남은 시간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박지성 “김민재 놀라워...나폴리, 챔스 우승도 가능”

“손흥민에게 시간 주고 기다려야”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가 김민재와 나폴리를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지성은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매체 투도메르카토웨이 인터뷰에서 나폴리의 챔스 우승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안 될 게 뭐 있냐”며 “세리에A와 유럽에서 잘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해외에 있는 축구팬들도 나폴리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나폴리 경기를 보는 것은 즐겁다”며 “나폴리는 공격적인 경기를 하며 김민재 같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에 대해 “김민재는 튀르키예 리그를 거치며 성장했다”며 “이탈리아 무대로 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김민재는 기술적, 인간적으로 나폴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켜봤다.

박지성은 손흥민에 관해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지만 손흥민의 활약에도 팀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흥민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결국에는 손흥민이 팀에 무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스

## 인천전 해트트릭 광주FC 아사니, K리그1 4R 최우수선수

광주, 아사니 해트트릭에 엄지성·이희균 첫 골

K리그2 MVP는 김포FC 무패행진 이끈 루이스



K리그1 4R MVP 광주 아사니.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작성한 광주FC 외국인 선수 아사니(알바니아)가 프로축구 K리그1 4라운드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아사니는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인천유나이티드 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광주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선발 출전한 아사니는 전반 8분 두현석이 페널티 아크쪽으로 찰리준 패스를 이어받아 왼

발로 첫 골을 넣었다.

아사니는 후반 2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인천 수비수를 밟고 떨어진 공을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추가 골을 넣었다.

이어 아사니는 후반 26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셋기 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광주는 아사니의 해트트릭과 함께 엄지성, 이희균의 시즌 첫 골을 더해 5-0으로 이겼다.

광주와 인천의 이날 경기는 4라운드 베스트 경기에 선정됐다. 광주는 매서운 공격력으로 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K리그2 4라운드 MVP는 김포FC 루이스다. 루이스는 1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 김포FC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김포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김포는 이날 승리로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실점 무패행진(2승 1무)을 이어갔다.

K리그2 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9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 김천 상무 간 경기다. 부산은 김천 김진규에 1골을 내줬지만 라마스, 페신, 최기윤이 골을 터뜨려 승리했다.

이슬비기자

## 오타니 “최고 무대, 즐기는 마음으로...결승 구원 등판”

멕시코와 4강전에서 9회 2루타로 끝내기 발판...일본, 미국과 오늘 결승서 격돌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최고 스타로 손꼽히는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멕시코와의 4강전에서 인상깊은 장면을 연출했다.

일본 야구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룬다포 파크에서 열린 2023 WBC 4강전에서 멕시코에 6-5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4-5로 끌려가던 9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지오바니 가에고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조구 체인지업을 노려져 우중간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렸다.

오타니는 1루를 돌면서 헬멧을 벗어던지며 전력 질주했다. 2루를 밟은 뒤에는 일본 더그아웃을 향해 크게 포효했다. 끌려가는 일본 대표팀에 포기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온 몸으로 전달하는 듯 했다.

오타니의 2루타는 일본의 끝내기 승리에 발판이 됐다.

요시다 마사타카(보스턴 레드삭스)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의 찬스를 이어간 일본은 무라카미 무네타카(야쿠르트 스왈로스)가 가운데 펜스를 맞추는 끝내기 2루타를 작렬해 극적인 승리를 챙겼다.

이번 대회에서 투수로도, 타자로도 맹활약을 펼치는 오타니는 이날도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활약했다.

오타니는 경기 후 닌텐스포츠 등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경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고의 상태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은 오타니는 미국을 상대로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일본과 미국의 결승전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3월 31일 열리는 오슬랜드 에슬레틱스와 2023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전에 선발 투수로 낙점된 오타니는 원래 4강전부터 투수로 등판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오타니는 전날 인터뷰를 통해 일본이 결승에 오르면 불펜 투수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타니는 이날도 ‘결승에서 구원 등판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일본 대표팀 모두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해주고 있다. 마지막인 만큼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